

1만800배 기도, 아름다운 천진불이여...

금정중 50여 명 180일간 108배... 원어민 교사도 '수계'

50여 명의 중학생 '천진불'이 100일간 1만800배를 성취했다. 부산 금정중학교(이사장 계진)는 3월 10일 1학기 개학 이후 휴일 및 방학을 제외한 모든 등교일마다 108배를 시작해, 10월 10일을 끝으로 1만800배를 달성, 10월 28일 제 34회 수계식을 갖고 원만회향했다. 현악제 교장은 "최근 성적 위주의 경쟁심판을 부추기는 교육 세태가 안타까워, 종교를 떠나 우리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체력 증진을 위해 108배 100일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라미터 불교학생회를 중심으로 약 100여 명이 108배를 시작, 여름 방학이 지난 후에도 50여 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정진해 어른들도 하기 힘든 1만800배 결실을 맺었다. 이들 중에는 불자는 아니지만 평소 몸이 허약해 체력 증진을 위해 참가하거나 수업시간에 산만한 집중력을 기르고 싶은 학생, 약한 친구들을 괴

롭히던 학생들도 동참했다. 학생들의 108배를 직접 지도한 이석연 교법사는 "학생들은 저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다툼 친구와 화해하고 싶어요' 등을 발원하고 성실하게 임했다"며 "어려운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정진한 학생들이 대견하다"고 전했다. 50여 명의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을 합쳐 장장 180일간의 108배 대장정을 수계식을 끝으로 회향했다. 금정중학교는 1975년부터 매년 전교생의 60%가 넘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수계를 하고 있다. 10월 28일 오후 1시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108배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사장 계진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이날 수계식에는 푸른 논의 아일랜드인 영어교사 린다 셸리번(27)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린다의 법명은 '일연화'. 아일랜드로 돌아가

면 '불법을 전하는 한 송이 꽃이 돼라'는 뜻이 담겨있다. 2006년 한국에 와 금정중 영어교사로 재직 중 불교를 좀 더 알고 싶어 흥법사(주지 심산) 외국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신행활동에 참여했다. 제2기 심산 스님의 유발상좌이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린다는 "가톨릭과 불교의 교리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기가 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다"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보살행을 마음 깊이 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중순, 금정중학교 영어교사 임기를 마치고 고국인 아일랜드로 돌아가는 린다는 "아일랜드에 돌아가서도 보살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100일간 천진불들의 열정으로 또



108배를 하며 100일 기도를 마친 금정중 불자들이 10월 28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위). 연비를 받는 영어교사 린다(오른쪽).

거웠던 열기가 새 식기도 전에 금정중학교 법당은, 이제 또 다른 학생들이 찾아와 108배를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뜻을 세우고, 시간을 정해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2009학년도 1학기가 개강하면 108배 2기 참가자를 모아 다시 1만800배 기도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마산금강노인종합복지관 관인철 관장

“어르신 모두 행복한 날 만들어요”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마산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관인철 관장(사진)은 마산지역 어르신들의 수호신장(神將)이다. 단 순히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욕구에 맞춰 노인일자리창출센터 및 주말복지관, 실버플래너를 통해 노인전문기업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보고 즐기는 경로잔치를 탐파하고,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빛축제, 전래놀이 한마당, 실버봉사단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관 관장은 “우리 시대의 어르신들은 빈곤과 질병, 고독감에 웃음과 활기를 잃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계신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어르신들을 그늘진 집 안에서 세상으로 모시고 나와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보람과 긍지를 통해 웃음을 되찾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위해 보훈행원을 실천하고 있다. “항을 쓴 종이에 향내가 배어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지역사회에 은근하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관 관장은 최근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도 맡게 됐다. 이 기관은 노인학대 문제를 전원에서 개인하고 예방하는 곳으로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의 슬로건인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하루빨리 만드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관 관장은 “더 나아가 복지관 분관을 설치해 불교 복지시설 거점화와 지역사회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복지 실천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관인철 관장이 처음 불교



동명불원 영산대재 창건주 강석진 회장

동명불원(주지 정산) 창건주 동명목재 회 강석진 회장의 억울한 누명이 28년 만에 벗겨져, 24주기 기일을 맞아 동명불원에서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1980년 동명목재가 신군부로부터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낙인찍혀 1조 원 가량의 재산을 강제 헌납당한 사실이 28년 만에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은 10월 28일 강 회장의 장남 강경남 동명문화재단 이사장과 함께 시신이 안치된 동명불원 앞마당에서 추모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영산대재는 불모산영산재보존회(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제22호)의 외대령, 패불이운, 영산작법, 관육, 시시 등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범어사 주지 정어 스님은 특별 법문에서 일본 봉개사의 창건 설화와 함께 “부산불교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강 회장이 동명불원을 창건한 공덕은 크고 위대하다”며 추모했다. 박지원 기자

자성불 찾는 ‘법화산림’ 부산 대각정사 10월 26일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자성불을 찾아 내안으로 떠나는 85일간 ‘법화산림’이 열린다. 대각정사(주지 범각·사진)는 10월 26일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 7인인 고승을 초청하고 법화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참 나를 찾는 구법여행”을 주제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참 나’를 알고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범각 스님은 “우리는 본래 불성의 빛을 가진 존재지만 세상 빛에 물들어 퇴색해버렸다”며 “이번 법화산림대법회를 통해 자성의 빛을 밝혀 불자로서 ‘참 나’를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26일 주지 범각 스님의 입재 법회를 시작으로 11월 2일 성수 스님, 9일 백운 스님, 23일 선래 스님, 12월 7일 도업 스님, 21일 홍교 스님, 2009년 1월 4일 지성 스님, 18일 원종 스님 순으로 쏠뚝 만나기 어려



왔던 야단법석이 열린다. 특히 입재 100일째 되는 날에는 홍교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도 열릴 예정이다. 주지 범각 스님은 대각정사와 같은 건물에 이미 2년 전 한국 나란다불교아카데미를 운영해오던 중, 9월 26일 대각정사를 개원하게 됐다. 스님은 “기존의 불교아카데미 수 강생들이 교리에는 해박하지만 그에 비해 신심이 약한 점을 염려해, 선과 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각정사를 건립할사하게 됐다”며 “다종교처럼 매주 일요일 오전 온 가족이 함께 찾아와 공부하고 쉬었다가는 마음의 휴양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51)731-2300 박지원 기자

미타선원 참선수행학교 개원 조계종 최초 참선교육전문 기관 인가 예정

부산 도시 한가운데 오직 참선만을 전문 교육하는 참선수행학교가 문을 열었다.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10월 25일 오후 1시 참선수행학교 개원식 및 불사기념전시회를 봉행했다. 한국선원장 수발, 흥법사 주지 심산, 반야원 주지 목중 스님, 김은수 중구경찰 및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발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의 길을 걷는 불제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수행을 당부하고 있고, 수행을 통해 안목이 열릴 때 원력은 지 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수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1월 초 실시할 첫 강좌는 조계종 포교원이 연구 개발한 <간화선 기



바로잡습니다. 703호 백련정사 만일염불회 기사에서 범어사 성보박물관을 통사성보박물관으로 정정합니다. 본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선공부에 입문하고자 하는 일반 재가자들을 위한 입문과 과정이 마련된다. 향후 참선수행학교는 동국대학교 선학과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선 수행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공동 연구에 앞장서게 된다. 한편 2009년 3월 조계종 최초의 참선교육 및 선 지도사 전문 양성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예정이다. (051)253-8686 박지원 기자

참 나를 찾는 구법여행

7인 고승 초청 법화산림대법회

대각정사는 참 나를 찾는 구법여행의 첫 출발점으로 「7인 고승 초청 법화산림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큰스님들의 법력과 원력은 하늘도 땅도 감동시킵니다. 법력 넘치는 고승 초청 법화산림 대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키워 깨달음을 성취하시길 다짐합니다.

■ 일시 : 2008년 10월 26일 ~ 2009년 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각정사 대법당 (해운대 선프라자 825호, 826호)

■ 문의 : (051)731-2300, 731-3104

※ 특별수계법회 : 7인 고승 초청 법화산림 대법회에 동참하여 1 회부터 7 회까지 참석한 불자들에게는 큰스님의 증명으로 보살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대한불교
조 계 종

대각정사

회주 홍교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주지 대풍 범각 합장

초청법회 법사

입재법문 : 10월 26일 범각 스님

| | | |
|--|--|--|
| 2008. 11. 02 (음 10. 5) 성수 큰스님 | 2008. 11. 09 (음 10. 12) 백운 큰스님 | 2008. 11. 23 (음 10. 26) 선래 큰스님 |
| 2008. 12. 07 (음 11. 10) 도업 큰스님 | 2008. 12. 21 (음 11. 24) 홍교 큰스님 | 2009. 01. 04 (음 12. 9) 지성 큰스님 |
| 2009. 01. 18 (음 12. 23) 원종 스님 | | |